곡성에 산업용 고압직류기기 시험센터 개소…해외 의존 탈피

국내 첫 1000v 이상 직류기기 시험
선진국 수준 시험 인증 역량 확보
연간 500억 절감…2단계 사업 추진

지난 13일 곡성군 오산면 연화리에 국내 첫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시험센터'가 문을 열었다. 〈곡성군 제공〉

해외기관에 의존했던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시험센터가 곡성에 문을 열었다.

14일 곡성군에 따르면 국내 최초 직류기기 전용 시험평가를 할 수 있는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시험센터 곡성시험소'가 전날인 13일 오산면 연화리에 개소했다.

센터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차세대 전력시장의 핵심분야인 직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했다.

지난 2017년 착공했으며 국비 230억원, 전남도 40억원, 곡성군 40억원 등 총 38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2만9623㎡의 부지에 건축 연면적 7818㎡ 지상 3층으로 건설됐다. 250MVA 직류 단락 시험설비, AC/DC 부하 개폐 시험설비, AC/DC 온도 상승 시험설비 등을 갖추고 있다.

또 국내 최초로 1000v 이상 산업용 직류기기와 부품에 대한 성능시험이 가능하다.

센터가 문을 열면서 공인 종합시험인증기관인 KTC 호남전력평가센터도 곡성군으로 이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전문성과 안전성, 신뢰성을 갖춘 선진국 수준의 시험인증 역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산업용 직류기기는 각종 산업에 활용되는 직류전원을 사용 또는 제어하는 장치들로 직류 차단기, 직류 개폐기, 직류 변환기, 보호설비, 배전반, 케이블, 스위치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국내에는 직류기기 시험평가·인증기관이 없어 해외기관에 의존했지만 곡성에 센터가 구축돼 연간 해외 시험비용 5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준시험법 개발,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 시험평가,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의 다각적인 지원도 가능해졌다.

직류기기는 또 디지털 기기, 전기자동차, 데이터센터, 에너지 저장장치 등 사용 분야가 급증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직류기기 세계시장은 56조원, 국내시장은 2025년까지 3조5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직류는 전력흐름제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와 디지털 기반의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마이크로그리드) 등 분산전원과 연계할 수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고압 직류기기 산업이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라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KTC는 시험센터 2단계 후속사업으로 144억원을 들여 올해부터 '고압전선 국제 상호 인증 평가 기반구축' 사업을 진행한다"며 "추후 다양한 후속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유근기 곡성군수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유근기〈사진〉곡성군수가 대한민국헌정회 주관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에서 자치행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민국헌정회는 1991년에 제정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전·현직 국회의원 3000여 명이 소속되어 있는 사단법인이다.

유 군수는 지역의 잠재적 성장력을 높이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를 조성하고자 미래교육재단을 설립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유 군수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공약 및 역점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군민 행복지수 1위 곡성의 초석을 단단하게 다져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순천시·서울 송파구 상호 발전·번영 자매결연

순천만국가정원·롯데월드 이용료 20~50% 할인

순천시와 서울 송파구는 지난 12일 순천시청에서 상호 발전과 번영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와 서울 송파구가 상호 발전과 번영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14일 순천시에 따르면 양 지자체는 지난 12일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허석 순천시장과 박성수 송파구청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했다.

양측은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공동 관심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또 협약을 계기로 양 도시 주민들에게 관광시설 이용료를 할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송파구민은 순천만국가정원 등 순천지역 관광지 입장료를 할인받고, 순천시민은 송파구 소재 롯데월드 어드벤처,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서울스카이 등 관광명소의 입장료를 20~50% 할인받는다.

순천시는 송파구와 자매결연 협약을 계기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역 대표축제 상호 방문, 행정정책 우수 사례 교류, 민간단체 교류 지원 등 실질적 교류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허석 시장은 "정원의 도시 순천과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 송파구, 두 도시의 강점을 살린 다양한 교류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도시는 지난해 자매결연에 대한 의회 동의로 협약을 추진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미뤄오다 이날 협약을 체결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성매매 피해 여성에 '갑질 의혹'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경고 처분

여수시, 욕설·폭행 등 조사…대표 A씨 강력 부인

여수시가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보호센터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

14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대표 A씨가 성매매 피해 여성 쉼터에서 생활하는 여성들에게 권위를 앞세워 욕을 하거나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수시는 의혹을 제기한 활동가와 면담한 데 이어 전문가와 함께 피해 여성들을 상담했다.

여수시는 센터를 상대로 조사에 나섰으며 대표 A씨는 갑질과 폭언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대표 A씨의 직무를 정지했다.

조사에 나선 여수시는 비품 대장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일부 적발하고 경고 조치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설 거주자에 대한 폭행이나 학대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1차 위반 시 개선 명령을 하고 2차 위반 때는 시설장을 교체하게 돼 있다. 3차 이상 규정을 어기면 시설을 폐쇄하게 된다.

한편,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는 법인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비대위는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특정인의 성명서로부터 촉발된 분규와 혼란은 그 진위를 떠나 다수의 2차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법인의 정상적인 업무가 마비돼 다수의 폭력피해 여성들이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냉혹한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명된 진실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그 전부를 공개하되, 2차 피해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수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사단법인의 정상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비영리기관인 사단법인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는 2010년부터 성매매 피해 여성을 보호하고 자활센터를 통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순천 사회적기업 26곳 재정 지원 받는다

신규 4곳 등 전남도 최다

순천시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기업 26곳이 재정 지원을 받는다.

14일 순천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전남도가 지원하는 '2020년 하반기 예비 사회적기업'에 순천지역 4개 기업이 선정됐다. 또 기존 사회적경제기업 22곳도 재정지원사업 대상자로 뽑혔다.

이는 전남지역 지자체 중 최다 선정이다.

4개의 예비 사회적기업은 일자리창출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신청자격이 부여되고, 향후 인증 사회적기업을 위한 경영 컨설팅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판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정 기간은 3년이다.

13개 기존 (예비)사회적경제기업은 지역 내 취약계층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받고, 9개 기업은 시제품 제작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는다.

특히, 이번 재정지원사업은 비대면 콘텐츠 개발과 온라인 판매 시스템 구축 등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생활 패턴에 맞춰 진행된다.

순천지역에서는 이번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4개 기업을 포함해 총 48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 중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